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외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사도 10,34-37-43

[부 속 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화 답 송] 시편 118(117), 1-2. 16-17. 22-23(◎ 24)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졸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제 2독서] 콜로 3,1-4(또는 1코린 5,6-8)

성가	11시 미사	입당 130	봉헌 129 216	성체 134 179	파견 128	
주일 전례 봉사						
구 분	예수부활대축일(3월 31일)		부활 제2주일/자비주일(4월 7일)		부활 제3주일(4월 14일)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마리크레센시아(정현)		김글라라(순희)	전베로니카(진영)	이바로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정스텔라(애리)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부활을 삼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목격한 것은 그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몹시도 당황한 그녀는 황급히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20,2)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녀였지만 역시 부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역시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복음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요한20,9)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서 고백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굳게 믿으며, 또한 “영원한 삶”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굳게 믿으며, 서로 사랑하고 언제나 희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은 이다음에 죽은 다음에나 체험하게 될 그런 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좁게 생각하니까, 지금 나의 삶과 연결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부활이 너무나 막연한 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매일 체험되고 계속되는 생동감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골로3,1)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매일 매일 이기적인 자신에게 죽고, 사랑으로 매일 매일 또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은 서서히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사도 10,39-40)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전에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들이 변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을 보면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분명 예삿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인 소중한 것인데, 그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부드럽고 따뜻한 믿음

부모가 자녀에게 ‘애야, 난 널 믿는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있기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분석을 훌쩍 뛰어 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차원을 내포하면서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지엔 따뜻함이 물씬 묻어납니다. 부드럽고 활기차고 생명에 넘친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밝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믿음도 바로 이 차원의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아마포와 얼굴을 썼던 수건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함에 빠져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론 너무 쉽게 부활을 생각하며 믿음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보고 믿었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도망가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심한 좌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의 그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감싸 안고, 도닥거려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희망이 샘솟고, 위안과 평화의 힘이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학 계산하듯 딱 떨어지는 셈법을 들이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온몸을 통해 알아듣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알아듣는 이 믿음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의 소치도 아니고 광신적인 맹목적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깊이깊은 곳을 건드리는 체험입니다.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알아들음이 일어나는 차원이고, 인간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차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와 비애를 묵도하면서도 그 속에 함몰되어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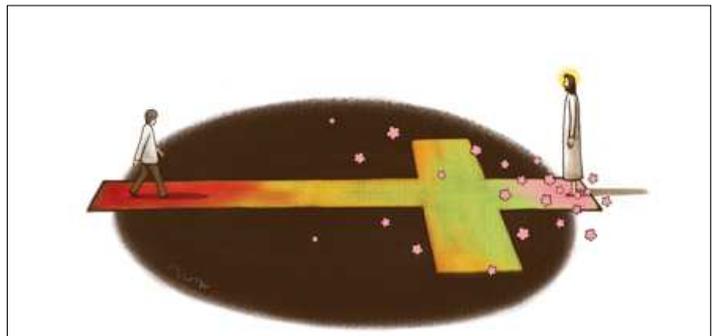
운 비상이 일어나는 차원입니다. 하여 인간이 참으로 겸손해지고 순박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제자가 보여준 이 믿음의 차원을 우리도 일궈내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비범하고 특출난 사람만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소박하기 짝이 없는 서민들이 가장 잘 가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그 텅 빈 영혼 위에 새로운 희망이, 새 생명의 기운이, 새 위로의 숨결이, 눈처럼 내려 앉아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나 아름다운 서민들은 그 위로와 생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여 참으로 부활의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예수회



부활은 건너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물을 섬기는 삶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너감입니다.
이 건너감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글_전송규 신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보답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영화를 만들고 있는 분도 ‘부활은 종교적 상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 쪽으로 발을 들여놓은 저는 그분과 의기투합해서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영화도 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만뒀야 하는 것일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저는 주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풀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주님께 원망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막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셨는데...’

실컷 원망하다 보니 제가 주님께 드린 보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루르드에서 돌아온 후 유작이란 기분으로 만든 메시아를 다룬 작품인 레드문도 제 힘으로만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몸을 고쳐주신 데엔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저 사랑받는다고 우쭐하여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 깨달았을 때, 저와 영화를 만들던 분이 이제 다른 작품을 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지금의 작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아피아가도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그곳에 지은 퀴바디스 도미네 성당.... 루르드에서 로마로 갔을 때 그 작은 퀴바디스 성당에서 본 예수님의 발자국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그 감동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분과 만들기로 한 영화 속에 녹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로마와 나폴리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과 요한이라는 청년이 각자 퀴바디스 성당에서(지금은 성 세바스티아누스 성당으로 옮겨 놓음) 주님의 발자국을 보는 장면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의 발자국을 보고,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 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것은 이러한 작품을 계속 만들라는 뜻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 작품을 통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기쁨과 치유를 얻고, 조금이나마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일 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황미나 아가다
만화가

머무름

**그 누구도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십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47항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인데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의 부활사건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길거리 응원의 환희와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걷고 있는 이 땅 위에서 1950년에는 전쟁의 비극과 처참함도 있었습니다. 1945년에는 해방된 자유의 기쁨이 있었고, 지금부터 420년 전에는 총무공과 수많은 의병들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도들을 증인으로 파견하시고, 그들은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부활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근거는 이 모든 것이 실제 사건들이고, 이 땅 위에 살다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역사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천 년 전,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는 신약성서가 증언하듯이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낳은 실제 사건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639항)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체험을 통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실하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들을 경험하며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으며, 목자 잃은 양떼처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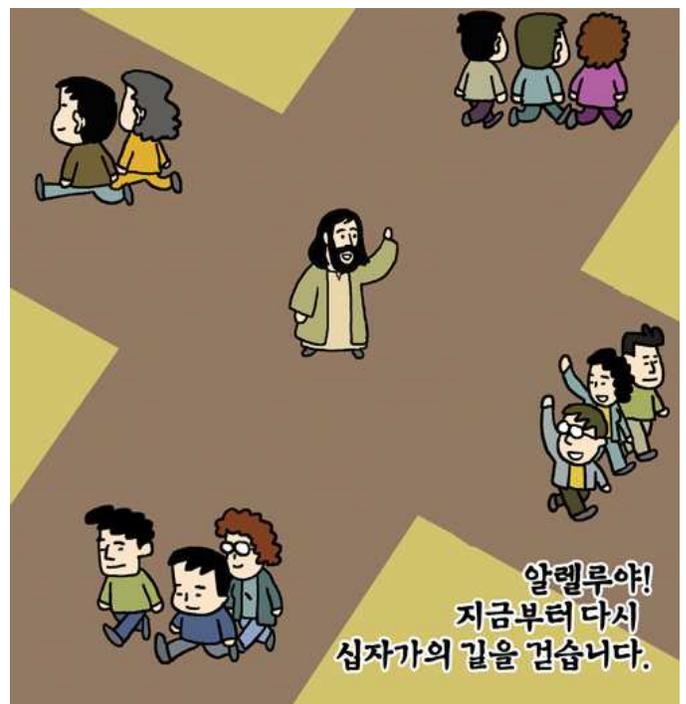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638-642항, 646-647항

사목국 연구실

그런데 사흘 후, ‘무슨 일’ 인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반신반의했던 제자들은 숨 가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는 첫걸음” (가톨릭교회교리서 640항)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기위해 먼저 베드로에게 이어서 열두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코린 15,5 참조)

또 예수님은 낙담한 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불타올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 이 있었기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박차고 일어나며,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까? 그들이 수고와 핍박,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



날짜	지향	봉헌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4월 2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8시</th> <th>11시</th> <th>영어미사</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미사참석인원</td> <td>80</td> <td>255</td> <td>54</td> <td>389</td> </tr> <tr> <td>헌금</td> <td>\$510</td> <td>\$1,584</td> <td>\$66.16</td> <td>\$2,160.16</td> </tr> </tbody> </table>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0	255	54	389	헌금	\$510	\$1,584	\$66.16	\$2,160.16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0	255	54	389																		
헌금	\$510	\$1,584	\$66.16	\$2,160.16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 교무금 > \$2,270 서춘애(3) 권영현(3-4) 정일양(3) 조관식(1-3) 홍흥기(3-4) 송선주(2-3) 전덕천(3-4) 박일환(3) 강신호(1-2) 조덕행(3-4)																			
	연 서종구	서데레사						< 성소후원금 > \$40 홍흥기(3-4) 조덕행(3-4)														
	생 정아델라	정토마스/루시아	< Bishop's Appeal > \$40 홍흥기(3-4) 조덕행(3-4)																			
	생 채줄리아	유요셉						< 감사헌금 > 기타동호회 \$120 서춘애 \$300														
4월 3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지난주</th> <th>금주</th> <th>누계</th> </tr> </thead> <tbody> <tr> <td>약정액</td> <td>\$310,715.28</td> <td>-</td> <td>\$310,715.28</td> </tr> <tr> <td>봉헌금</td> <td>\$291,245.28</td> <td>-</td> <td>\$291,245.28</td> </tr> </tbody> </table>						지난주	금주	누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지난주	금주	누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	\$291,245.28																			
	연 서라이문도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4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연 서종구	서데레사						<p style="text-align: center;">☺☺☺☺ 새로 오신 분 ☺☺☺☺</p>														
4월 4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 9구역 최순일/김옥순 가정 ☎ 925-459-0893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 버클리 권보미 엘리사벳 가정 ☎ 510-717-8849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서종구	서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익명																				
4월 5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서종구	서데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4월 6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서종구	서데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생 김데레사(은혜)	이엘리사벳																				
	생 김가브리엘라(애린)	이엘리사벳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겨워하시.



◆ 전례안내

4월 4일(목) : 성시간

4월 6일(토) : 성모신심미사(꾸리아 월례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4월 5일(금) 저녁 9시부터 4월 6일(토) 아침 7시까지

◆ 자비주일 고해성사

4월 7일(주일) 미사 30분 전

◆ Rice bowl 봉헌 : 성당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오늘 교중미사 중 건축위원회에서 소성당 건축 중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 모임

- * 프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요아킴/안나회 : 4월 7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2013 FIAT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자격 : 북미주 거주 한인 가톨릭 학생(고등학교 12, 대학생, 대학원생)으로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

신청마감 : 5월 31일

신청서 다운로드 : FIAT 웹사이트(www.flat.org)

신청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북가주 한인 공동체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클리닉

일시 : 4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임마누엘 장로교회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예약 및 문의 : 800-871-9012 Ext. 124930#

(당일 오시는 분은 선착순)

◆ 오늘은 각 구역별 음식 바지회가 있습니다.

♪ 수 고 아 션 습 니 다. ♪

사순시기와 부활 전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봉사해 주신 전례단과 성가대, 각 구역의 구역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